

666-667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이민수**

-
- I. 머리말
 - II. 666년 요수 전투와 667년 신성 전투
 - III. 667년 고구려-당의 공방전과 전선의 고착화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구려 멸망 전쟁(666-668)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666-667년의 전황에 대해 다루었다. 당 고종은 666년 6월 7일 남생 구원군을 파병하였다. 형인 남생을 축출하고, 고구려의 새로운 집권자 된 남건은 당의 출병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15만 병력으로 요수에 주둔하였다. 666년 9월 고구려군과 당의 남생 구원군은 요수 일대에서 한 차례의 전투를 치렀으며, 당군은 남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회군하였다. 이후 666년 10월 당은 대규모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듬해인 667년 1-2월 요수를 도하한 당군의 전략은 신성 함락 후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권역을 확보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것이었다. 고구려 신성의 군대는 당군의 침공에 맞서 무려 8-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667년 9월 14일 함락되었다.

이후 당군은 전력을 분산하여 이적이 압록수 일대로 남진하고 글필하력, 방동선, 고간, 설인귀가 신성을 방어하면서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권역을 장악하고 남생의 신변을 확보하였다. 고구려는 압록수 일대로 진군한 이적이 당군에 맞서 당군의 압록수 도하를 차단하고, 전선의 확장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를 간파하여 당군을 기습하기도 하면서 당군의 안시성 함락을 저지한 이후 당군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안시성으로 진군하였다. 지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건안성과 오골성을 사수하고 당군의 압록수

* 이 논문은 ‘2024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도하도 저지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고구려, 당, 남생, 남건, 이적, 글필하력, 설인귀

I. 머리말

666-668년에 전개된 3차 고구려-당 전쟁은 고구려가 멸망한 전쟁으로 고구려 역사상 가장 장기적으로 전개된 만큼 그 전투 양상도 치열했다. 또한 신라-당 전쟁의 초입으로 향하는 입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¹⁾. 특히 최근 2020년대에 들어 남생과 고구려 성곽방어체제의 붕괴²⁾, 고구려-당의 전투³⁾, 고구려-신라 전투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전되었다. 이 연구들은 666-668년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부터 전면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복원을 시도를 통해 새롭게 재조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종래의 고구려군-당군 교전에 집중된 논의를 신라군과의 교전으로 환기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양상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복원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기본 사료의 부족과 소략으로 인한 전황의 공백, 사서 기록 사이의 불일치가 거론되기도 했다.⁵⁾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고구려 최후의 전쟁 연구는 여전히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666-668년 고구려 전쟁을 전부 논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666-667년으로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약 2년에 걸친 장기전인 만큼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 고구려는 668년 부여성 전투의 패전을 기점으로 전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졌다. 또한 신라군의 본격적인 참전도 668년이므로 이전의 666-667년 전쟁과 분리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와 기존에 알려진 사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수반하여 실상에 근접한 전황의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유관 사료의 대부분은 당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전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사료를 분석할 때, 고구려를 주어로 치환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고구려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범위인 666-667년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전쟁의 전제이기도 하

1) 池内宏, 1960, ; 임용한, 2001, 286-292쪽 ; 김용만, 2003, 283-309쪽 ; 노태돈, 2009, 214-220쪽 ; 鄭媛朱, 2013, 270-278쪽 ; 김진한, 2020, ; 임기환, 2022.
2) 오진석, 2021.
3) 김강훈, 2017 ; 이민수, 2018 ; 徐榮教, 2021 ; 徐榮教, 2022a ; 徐榮教, 2022b ; 임기환, 2022 ; 정원주, 2023 ; 임진수, 2024.
4) 김병곤, 2013 ; 이상훈, 2017 ; 이상훈, 2018. ; 이상훈, 2020 ; 임기환, 2023.
5) 임기환, 2022, 46-47쪽.

다. 본고가 고구려 멸망 과정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II. 666년 당의 고구려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

A군은 666년 6월 고구려에서 동생들로부터 축출된 남생이 당에게 아들 헌성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하자, 고종이 구원군을 편성한 사료이다.

A-①. [666] 6월 임인(7일)에 右驍衛大將軍 契苾何力을 遼東道安撫大使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구원하게 하고, 獻誠을 右武衛將軍으로 삼아서 길을 인도하게 하였다. 또 金吾衛將軍 龐同善과 營州都督 高侃을 行軍總管으로 삼아서 함께 高麗를 토벌하게 하였다.⁶⁾

A-②. 乾封 원년(666) … 蓋蘇文이 죽고, 아들 男生이 대신하여 莫離支가 되었는데, 男建·男山 두 아우가 있어 서로 사이가 나빴다. 남생이 國內城을 점거하고 아들 헌성을 보내어 입조하여 구원을 청하니, 개소문의 아우 淨土도 역시 땅을 배어 항복할 것을 청해 왔다. 이에 조서를 내려 글필하력을 요동안무대사로 삼고, 좌금오위장군 방동선과 영주도독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삼는 한편, 左武衛將軍 薛仁貴와 左監門將軍 李謹行을 후속 부대로 떠나보냈다.⁷⁾

A-①에 의하면 666년 6월 7일 고종은 남생을 구원하기 위해 글필하력을 요동도안무대사, 방동성관 고간을 행군총관, 헌성을 향도로 삼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그리고 A-②에 의하면 이때 이들 외에도 설인귀와 이근행을 후속부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당시 남생이 국내성에 주둔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다. 즉, 남생은 국내성에서 남건과 내전을 전개하면서 헌성을 당에 파견한 것이다. 아래 B군은 남생 구원군과 고구려군의 첫 교전에 대한 기사이다.

B-①. (666) 9월, 龐同善 등이 高麗와 더불어 싸워 그들을 패배시켰다.⁸⁾

B-②. (666) 9월, [방]동선이 고려의 군대를 깨뜨리자, 남생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합류했다. [고종이] 詔書を 내려 남생에게 特進 遼東大都督 겸 平壤道安撫大使를 제수하고, 玄菟郡公에 봉하였다.⁹⁾

6)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6월, “壬寅 以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遼東道安撫大使 將兵救之 以獻誠爲右武衛將軍 使爲鄉導 又以右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侃爲行軍總管 同討高麗.”

7)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乾封 元年 藏遣子男福從天子封泰山 還而蓋蘇文死 子男生代爲莫離支 有弟男建·男產相怨 男生據國內城 遣子獻誠入朝求救 蓋蘇文弟淨土亦請割地降 乃詔契苾何力爲遼東道安撫大使 左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爲行軍總管 左武衛將軍薛仁貴·左監門將軍李謹行殿而行.”

8) 『신당서』 권3, 본기3, 高宗 乾封 원년 9월, “龐同善及高麗戰 敗之.”

9)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九月 同善破高麗兵 男生率師來會 詔拜男生特進·遼東大都督兼平壤道安撫大使 封玄菟郡公.”

B-③. 乾封 초 고려의 대장 泉男生이 무리를 거느리고 내부하자, 고종이 장군 방동선과 고간 등을 보내 그를 영접하게 하였으나, 아우 男建이 國人을 거느리고 同善 등을 공격하였다. 조서를 내려 仁貴가 군대를 거느리고 후원하였다.¹⁰⁾

B-④. 건봉 초에 고려의 천남생이 내부하자, 장군 방동선과 고간을 보내 가게 하여 [남생을] 慰納하게 하였는데, 아우 남건이 국인을 거느리고 굳게 지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서를 내려 仁貴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동선을 후원하게 하여 [고구려군을] 쫓아버렸다.¹¹⁾

B-⑤. [666] 9월, 방동선이 고려의 군대를 대파하자, 천남생이 군대를 거느리고 동선 등과 더불어 함하였다. [고종이] 조서를 내림으로써 남생을 특진·요동대도독 겸 평양도안무대사를 삼고 현도군공에 봉하였다.¹²⁾

B-②, ⑤에 의하면 666년 9월 방동선이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로 인해 남생이 군대를 거느리고 합류하였으며, 고종이 조서를 내려 남생에게 특진·요동대도독 겸 평양도안무대사를 제수하고, 현도군공을 책봉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남생묘지」에서는 남생이 고종으로부터 요동대도독과 현도군공에 책봉된 시기를 다르게 전하고 있다. 「천남생묘지」를 살펴보자.

C. 乾封 원년(666)에 공이 또 아들 獻誠을 보내 입조시켰다. 황제께서 가상히 여기고 멀리서 공을 特進에 배수하고 太대兄은 예전과 같이 하였으며, 平壤道行軍大總管 겸 使持節按撫大使로서 본국의 군대를 이끌고 大總管 契苾何力 등과 함께 서로 경략하게 하였다. 공은 國內城 등 6성의 10여 만호를 이끌고 호적 문서를 轄門에 바쳤다. 또 목저성(木底城) 등 3성이 황제의 교화를 바라며 아울러 귀순하였다. 작고 위태로운 무리들이 나날이 궁박해지고 다달이 위축되었다. [건봉] 2년(667)에 조칙을 받들어 공이 입조하였다. 總章 원년(668)에 [천남생에게] 使持節遼東大都督 上柱國 玄菟郡開國公과 식읍 2천호에 봉하였으며, 나머지 관은 예전과 같게 하였다.¹³⁾

C에 의하면 남생은 B-②, ⑤에서 666년 9월에 요동대도독 현도군공에 책봉된 것으로 전하는 것과 달리 668년에 책봉된 것으로 전한다. B-②, ⑤는 여러 시기 사건들의 경과를 선후관계만으로 정리한 것으로 즉, 시간 구분 없이 발생한 사건과 그 결과에 중점을 두어 9월 기사

10) 『구당서』 권83, 열전33, 薛仁貴, “乾封初 高麗大將泉男生率眾內附 高宗遣將軍龐同善 高侃等迎接之男生弟男建率國人逆擊同善等 詔仁貴統兵為後援.”

11) 『신당서』 권111, 열전36, 薛仁貴, “乾封初 高麗泉男生內附 遣將軍龐同善·高侃往慰納 弟男建率國人拒弗納 乃詔仁貴率師援送同善.”

12)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9월, “龐同善大破高麗兵 泉男生帥眾與同善合 詔以男生為特進·遼東大都督·兼平壤道安撫大使 封玄菟郡公.”

13) 「泉男生墓誌」, “乾封元年 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 遙拜公特進 太대兄如故 平壤道行軍大總管 兼使持節按撫大使 領本蕃兵 共大總管契苾何力等 相知經略 公率國內等六城十餘萬戶 書籍轄門 又有木底等三城 希風共款 叢叢危矣 日窮月蹙 二年 奉勅追公入朝 總章 元年 授使持節遼東大都督上柱國玄菟郡開國公 食邑二千戶 餘官如故.” 이와 유사한 기사로,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泉男生,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總管 兼使持節安撫大使 舉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就軍慰勞 賜袍帶·金釵七事.” 가 참고된다.

에 모두 함축해 기록한 것이다.¹⁴⁾ 그렇다면 남생과 방동선의 합류 역시 666년 9월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B-①은 B-②, ⑤와 달리 666년 9월에 발발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건들을 함축적으로 전하지 않으며, 오직 방동선이 9월에 고구려군과 전투를 전개하여 승리한 사안만 전하고 있다. 그리고 B-③, ④는 666년 9월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B-③에 의하면 고종이 방동선과 고간 등을 보내 남생을 영접하게 하였으나, 남건이 國人을 거느리고 방동선 등을 공격하여 설인귀가 군대를 거느리고 후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B-④에 의하면 고종이 방동선과 고간에게 남생을 위무하며 들이게 하였으나, 남건이 굳게 지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안만 전하고 있다. 즉, 방동선과 고구려군의 전투만 666년 9월에 발발했으며, 남생과의 합류와 남생의 책봉은 다른 시기에 성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B군에는 방동선과 고구려군이 첫 전투를 치른 전장이 전하지 않는다.¹⁵⁾ 다만, 방동선 등 당군이 국내성에 주둔하던 남생을¹⁶⁾ 구원하고자 한다면, 육로로 고구려에 왔을 것이다. 이는 당시 당군의 편성에 영주도독 고간은 물론 주로 육지에서 활약했던 장수들이 포진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612년 고구려-수 양군의 첫 격전지가 요수였으며,¹⁷⁾ 645년 에도 당군이 遼水를 경유하여 현도성을 공격한 사례가 주목된다.¹⁸⁾ 그렇다면 방동선의 당군 역시 고구려군과 요수 일대에서 전투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D군이 주목된다.

D-①. 乾封 元年(666), 또 遼東道行軍大總管 겸 安撫大使가 되었다. 高麗의 무리 15만이 遼水에 주둔해 있었으며, 또 靺鞨 수만 명이 南蘇城에 응거해 있었다. 何力은 힘써 공격해, 모두 크게 깨뜨리고 목을 벤 것이 만 여급이었다. 승리한 기세를 타고 진격해 7개 성을 함락했다.¹⁹⁾

D-②. 얼마 지나지 않아 蓋蘇文이 죽자, 男生이 동생들에게 쫓기는 바가 되어 아들을 보내 關에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하력을 요동도행군대총관·안무대사로 삼아 李勣을 돕게 하여 함께 고려에 나아가게 하였다. 勣이 이미 新城을 함락하고, 何力에게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 이때 고려의 군사

14) 임기환, 2022, 51쪽 ; 정원주, 2023, 65쪽.

15) 666년 9월 당군이 요수를 건넜다는 견해가 있으나(노태돈, 1999, 224쪽 ; 임진수, 2024, 46~47쪽), 사료에는 당군이 요수를 건넜다는 기사가 전하지 않는다.

16) 당시 남생의 주둔지에 대해 「泉男生墓誌」의 “飭躬玄菟之城”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현도성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으나(김용만, 2003, 286-287쪽 ; 정원주, 2014, 326-327쪽 ; 서영교, 2021, 62-63쪽 ; 오진석, 2021, 73쪽), 해당 구절은 지명은 특정 지명을 가리키기 보다는 고구려 영역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기환, 2022, 52-53쪽).

17) 『자치통감』 권181, 수기5, 煬皇帝 大業 8년 3월, “癸巳 上始御師 進至遼水 衆軍總會 臨水爲大陳 高麗兵阻水拒守 隋兵不得濟.”

18)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3·4월, “李世勣軍發柳城 多張形勢 若出懷遠鎮者而潛師北趨甬道 出高麗不意 夏 四月 戊戌朔 世勣自通定濟遼水 至玄菟.”

19) 『구당서』 권109, 열전59, 契苾何力, “乾封 元年 又爲遼東道行軍大總管 兼安撫大使 高麗有衆十五萬 屯於遼水 又引靺鞨數萬據南蘇城 何力奮擊 皆大破之 斬首萬餘級 乘勝而進 凡拔七城.”

15만 무리가 遼水에 주둔하였으며, 靺鞨의 수만 무리를 끌어들여 南蘇城에 웅거하자, 하력이 奮擊하여 그들을 깨뜨리고 만 급의 머리를 베고, 승세를 타고 나아가 8개 성을 함락하였다.²⁰⁾

D-③. 건봉 원년 또 [글필하력을] 요동도행군대총관겸 안무대사로 삼았는데, 고려의 15만 무리가 있어 요수에 주둔하였다. 또 말갈의 수만 명을 끌어들여 남소성에 웅거하게 하자, 하력이 본격하여 그들을 모두 크게 깨뜨려서 만여급을 베었다, 승세를 타고 나아가 무릇 7개성을 함락하고 이에 군대를 돌렸다.²¹⁾

D군에 의하면 고구려는 요수에 15만 병력을 주둔시켰다고 한다. D-①, ③에서는 고구려가 요수에 15만 병력을 주둔한 시점을 666년으로 기술한 것과 달리 D-②에서는 신성 함락 이후로 기술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성의 함락 시기는 『자치통감』에 의하면 667년 9월 14일²²⁾로 확인되므로 D-②에 착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군의 진군로는 서쪽에서 동진하는 것으로 요수→신성→남소성이기 때문에 신성 함락 후에 다시 서진하여 요수에 주둔한 15만 대군과 대치한다는 것은 진군로상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³⁾ 고구려 역시 신성이 함락되었다면 15만 대군을 굳이 신성의 서쪽인 요수에 주둔시켜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요수에 15만 대군을 주둔한 시점은 666년으로 기술한 D-①, ③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66년 당시 당군은 6월에 남생 구원군 출병, 10월(혹은 11·12월)에 본격적인 침공군 출병으로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만일 당군의 2차 출병 때 고구려의 15만 병력이 요수에 주둔하였다면 당군의 요수 도하를 저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요수에 15만 병력을 주둔시킨 시점은 666년 9월경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⁴⁾ 따라서 666년 9월

20)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契苾何力, “時高麗兵十五萬屯遼水 引靺鞨數萬衆據南蘇城 何力奮擊 破之 斬首萬級 乘勝進拔八城.”

21) 『책부원귀』 권358, 將帥部19, 立功11, “乾封元年 又爲遼東道行軍大總管兼安撫大使 高麗有衆十五萬屯於遼水 又引靺鞨數萬 據南蘇城 何力奮擊 皆大破之 斬首萬餘級 乘勝而進 凡拔七城 乃廻軍.”

22)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辛未 李勣拔高麗之新城 使契苾何力守之 勣初度遼 謂諸將曰. “新城 高麗西邊要害 不先得之 餘城未易取也 遂攻之 城人師夫仇等縛城主開門降 降 勣引兵進擊 一十六城皆下之.” ”

23) 물론 이적이 新城을 공략한 7개월 동안 글필하력이 요수에 주둔한 고구려의 15만 대군과 남소성의 수만 명 말갈 병력을 격파하고 남소, 목저, 창암, 3개 성을 함락하여 고구려의 신성 구원을 차단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서영교, 2021, 63쪽). 그러나 신성에서의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남건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신성을 구원하지 않고 요수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사건의 전후관계만이 아니라 군사 전략상으로도 무리한 추정이다. 한편, 이적군이 고구려 신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요수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직면했다면 2월에 신성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남건군 15만 명의 요수 주둔 사건은 667년으로 보기 어렵다(정원주, 2023, 67쪽 각주 41).

24) 남건이 직접 國人들과 함께 15만 병력을 편성하여 요수에 주둔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당군의 요수 도하를 저지하여 고구려 내지 진입 및 남생과의 접촉을 차단, 둘째. 당군에게 15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세를 통해 고구려의 견재와 위용을 과시, 셋째, 국내성 일대에 주둔 중인 남생 세력 압박, 넷째. 내전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국론 결집 및 새로운 대마라지로서의 입지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군이 방동선 군으로부터 패배한 전장은 요수 일대였던 것으로 생각한다.²⁵⁾

다음으로 B-①, ③, ④와 D-①, ③을 종합하여 666년 9월에 전개된 전투를 재구성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생이 보낸 헌성이 666년 5월 말에 당에 입조하였으며, 6월 7일 고종은 남생 구원군을 편성하여 남생을 구원하게 하였다. 666년경 대막리지로서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한 남건은 당의 이러한 동향을 최소한 7월경에는 접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666년 9월경 고구려의 15만 병력이 요수에 주둔하여 당군의 도하를 저지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남건이 15만 병력을 편성하고 요수까지 출병하는 이동거리와 시간을 고려한다면 9월경에 15만 병력이 요수에 주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²⁶⁾

666년 9월 남건은 국인들과 함께 15만 병력을 거느리고 요수 일대에 주둔하였다(B-①③④, D-①②). 이때 방동선과 고간이 남생을 위무하며 들이라는 고종의 조서를 명분으로 삼아 남건에게 남생의 신변을 요구하였으나, 남건은 요수 일대를 굳게 지키며 이를 거부하였다(B-④). 그리고 남건은 방동선, 고간 등의 당군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설인귀가 방동선과 고간을 후원하여 남건의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고구려군은 퇴각하였다(B-④). 이때 방동선 등의 당군이 요수를 도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남건이 일부 병력으로 요수를 도하해 방동선 등의 당군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B군에서는 고구려군이 당의 남생 구원군에게 크게 패배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다만, 이후 방동선의 추가적인 공세에 대한 기사가 없으며, 남생의 신변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보아 남건의 고구려군이 중국에는 남생 구원군의 요수 도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당의 남생 구원군이 소규모였으며, 안정적인 보급로 및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를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이 비록 표면적으로 남생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남건이 당의 남생의 신변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을 것이다. 즉, 666년 9월 당의 남생 구원군 출병은 고구려의 내전에 개입하고 침공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도발 행위로서 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당의 남생 구원군은 회군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⁷⁾ 그러나 남생 구원군이 회군하였다고 해서 고구려에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남건은 여전히 남생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군의 본격적인 침공이 언제 재개될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E군은 666년 말 당의 고구려 침공군 편성에 대한 사료이다.

E-①. [666] 겨울 10월 기유(己酉), [고종이] 명을 내려司空·英國公 勳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음으로써 高麗를 정벌하게 하였다.²⁸⁾

25) 정원주, 2023, 65-67쪽.

26) 羅棟煜은 645년 고구려의 15만 대군의 편성, 편제, 군수물자 준비가 갖춰지기 까지 소요된 기간을 30일로 파악하였다(羅棟煜, 2009, 102-103쪽).

27) 임기환, 2022, 51쪽. 정원주, 2023, 68쪽. 다만, 이때 회군한 남생 구원군은 667년 신성 전투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인근의 영주까지만 회군하고 대기했다가 본군과 합류한 것으로 생각한다.

E-②. [666] 11월 [고종이] 사공·영국공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裨將 郭待封 등을 거느림으로써 고려를 정벌하게 하였다.²⁸⁾

E-③. [666] 또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음으로써 글필하력과 방동선과 더불어 힘을 합하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獨孤卿雲으로 말미암아 鴨淥道, 郭待封을 積利道, 劉仁願을 畢列道, 金待問을 海谷道로 모두 行軍總管으로 삼고, 勳의 節度를 받게 하였다. 燕과 趙의 식량을 옮겨 요동(遼東)에 저장하게 하였다.²⁹⁾

E-④. [666] 겨울 12월 기유(己酉, 18일)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司列少常伯安陸 郝處俊으로써 그를 돕게 하여 고려를 치게 하였다. 방동선과 글필하력 모두 遼東道行軍副大總管 겸 安撫大使로 삼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게 하였다, 그들은 水陸 諸軍總管과 아울러 運糧使인 竇義積과 독고경운과 광대봉 등은 모두 勳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河北의 여러 州의 租賦는 모두 遼東의 軍用으로 공급하였다.³¹⁾

E-⑤. 乾封 元年(666) 12월, 명을 내려 사공·영국공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 겸 요동안무대사로 삼고, 左金吾衛將軍 방동선과 左驍衛大將軍 글필하력은 모두 예전과 같이 遼東道安撫大使로 삼았다. 그들의 水陸諸軍總管과 아울러 糧運使 竇義積, 독고경운, 광대봉은 함께 募兵하여 모두 勳의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고려를 토벌하게 하였다. 河北道의 여러 州의 조세를 모아 요동으로 보내 軍用으로써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水陸으로 길을 나눔으로써 平壤으로 향하게 하였다.³²⁾

상기한 E군에는 666년 6월 출병 때 참전했던 고간, 설인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편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간과 설인귀는 이후에 전개된 전투인 금산 전투와 부여성 전투에서도 활약했기 때문이다.³³⁾ 이때 당군은 수군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661-662년 전쟁³⁴⁾과 달리 666년 12월 18일 편성은 육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수군은

28) 『구당서』 권5, 본기5, 高宗 下 乾封 원년 겨울 10월, “己酉 命司空·英國公勳爲遼東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29)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666) 十一 命司空·英國公李勳爲遼東道行軍大總管 率裨將郭待封等以征高麗.”

30)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又以李勳爲遼東道行軍大總管兼安撫大使 與契苾何力·龐同善并力 詔獨孤卿雲由鴨淥道 郭待封 積利道 劉仁願 畢列道 金待問 海谷道 並爲行軍總管 受勳節度 轉燕·趙食廩遼東.”

31)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원년 겨울 12월, “己酉 以李勳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司列少常伯安陸 郝處俊副之 以擊高麗 龐同善·契苾何力並爲遼東道行軍副大總管兼安撫大使如故 其水陸諸軍總管并運糧使竇義積·獨孤卿雲·郭待封等 並受勳處分 河北諸州租賦悉詣遼東給軍用 待封 孝恪之子也.”

32) 『책부원귀』 권986, 外臣部31, 征討5, “乾封 元年 十二月 命司空英國公李勳 爲遼東道行軍大總管 兼爲遼東安撫大使 左金吾衛將軍龐同善·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 並依舊 爲遼東道安撫大使 其水陸諸軍總管 并糧運使竇義積·獨孤卿雲·郭待封 及募兵以上 並受勳處分 以討高麗 河北道諸州租稅 總起遼東 以給軍用 於是 水陸分道 以赴平壤.”

33) 또한 풍사훈처럼 문헌사료에 전하지 않는 인물들도 666년 편성에 있는 것으로 보아(「馮師訓碑」, “乾封元年 制爲積利道總管 統彼舟軍.”), 추가적인 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4) 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 전략은 다음과 같았던 걸로 파악했다: 1. 아사나총군 등이 육로를 통해 요동 방면으로 진군, 2. 소정방군 등이 해로를 통해 평양 방면으로 진군. 3. 글필하력군 등이 해

보조전략으로서 보급군으로 운용되었다. 이는 당의 수군이 661-662년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많은 함선과 수군을 상실했기 때문이다.³⁵⁾ 다음으로 당군의 출병 시점을 알아보자. 고종의 출병 조서를 내린 시기가 666년 10월(E-①), 11월(E-②), 12월(E-④⑤)로 사료마다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료 F군을 살펴보자.

F-①. [乾封] 2년(667) 2월, 勳이 遼水를 건너 新城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新城은 高麗의 서쪽 경계의 鎮城으로, 가장 要害이다, 만일 먼저 도모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성들은 쉽게 빼앗을 수 없소.”³⁶⁾

F-②. 이듬해(667) 정월, 勳이 [군대를] 이끄는 도중에 신성에서 여러 장수들을 모아 계책을 말하기를, “신성은 賊의 서쪽 변경으로 먼저 도모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 쉽게 함락할 수 없소.”³⁷⁾

F군에 의하면 이적이 요수를 건너는 시점은 2월(F-①) 혹은 1월(F-②)이다. 당군의 이동시간과 요수를 건너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당군이 출병한 시점은 10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⁸⁾ 이적은 요수를 건너면서 제장들에게 신성은 고구려 서변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성들도 함락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적이 이에 대해 발언한 대상인 제장들은 글필하력, 학처준, 방동선, 고간, 설인귀 등이었을 것이다. 이적이 초전부터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신성 함락을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원인은 신성의 장악 여부가 당군의 전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³⁹⁾

그렇다면 당시 당군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666년 남생은 당에 헌성을 보내면서 국내성 등 6개 성 및 3개 성과 함께 투항의사를 내비쳤다. 당군의

로를 통해 요동과 평양의 중간지대인 압록수 이북에 상륙하여 보급기지를 4. 3을 통해 요동과 평양의 고구려군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차단. 이러한 수군 중심의 고구려 공격 전략은 태종이 죽기 전에 고안했던 것으로 그의 뒤를 이은 고종이 더욱 보완하여 성사시킨 것이다(임진수, 2021).

35) 李玟洙, 2022b, 152-153쪽.

36)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乾封) 二年 二月 勳度遼至新城 謂諸將曰 新城是高麗西境鎮城 最爲要害 若不先圖 餘城未易可下.”

37)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明年 正月 勳引道次新城 合諸將謀曰 新城 賊西鄙 不先圖 餘城未易下.”

38) 이적의 출병시기를 666년 12월로 파악한 견해가 있으나(임기환, 2022, 54~55쪽 ; 정원주, 2023, 68~69쪽 ; 임진수, 2024, 20쪽), 이적이 666년 1-2월에 요수를 도하한 것을 고려한다면 따르기 어렵다. 644년 11월 24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 요동도행군은(『자치통감』□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8년 11월 甲午) 645년 4월 5일에 신성을 공격하였고(『자치통감』□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4월 壬寅), 645년 2월 12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자치통감』□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2월 庚戌) 태종의 6군은 5월 10일에 요수를 건넜다(『자치통감』□권197, 당기13, 太宗 貞觀 19년 5월 丁丑). 이로 보아 낙양으로부터 요수까지 행군하는 데 있어 대략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39) 이적은 645년 고구려와의 전쟁 당시 신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요동성 등을 함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건재했던 신성의 압박으로 인해 패퇴한 경험이 있다. 이적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신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면 다른 성들도 함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임기환, 2022, 59쪽).

전략은 이러한 남생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 우선 당군이 국내성에 주둔 중인 남생의 세력과 합류하기 위해서는 요동의 신성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성은 요동에서 국내성 방면으로 진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⁴⁰⁾ 당군은 신성을 확보한 이후 국내성 일대의 남생의 세력과 합세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을 함락하는 것이 당군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군의 전략에서 신성 함락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적이 지휘하는 당군이 요수를 건널 당시 고구려군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신성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666년 9월경 고구려의 15만 대군이 당군의 요수 도하 저지를 위해 요수에 주둔한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 667년 초에는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666년과 달리 요수가 결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남건 등 고구려 수뇌부에서는 결빙된 요수에서부터 당군을 저지하기 보다는 신성 등 요동방어망에서 수성전을 전개하며 당군을 상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건이 여전히 남생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지속적으로 요수에 주둔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신성의 고구려군은 무려 8-9개월 동안 당군과 치열한 수성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당군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성의 공격하는 데 전념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고구려는 당군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남생의 세력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신성에 전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당군이 신성에 공세를 퍼붓다가도 요동성이나 건안성 혹은 부여성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성을 함락한다면 당군의 고구려 내지 진입을 허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성이 8-9개월간 당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는 것으로 보아 남건이 신성 전선에 일정한 병력과 군량 그리고 무기, 군량, 병력 등 군수물자와 같은 지원을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⁴¹⁾ 당은 전력을 다해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공략이 지지부진하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Ⅲ. 667년 고구려-당의 공방전과 전선의 고착화

다음의 G군은 고종이 신라에게 고구려 전쟁에 참전할 것을 지시하고 신라가 출병한 사료이다.

G-①. (667년 7월) 당의 황제가 勅을 내려 智鏡과 愷元을 장군으로 삼아서 遼東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왕은 곧 지경을 波珍濱으로 삼고, 개원을 大阿濱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勅을 내려, 日原

40) 노태돈, 1999, 233쪽.

41) 신성 전투 신성이 외부의 지원 없이 고립무원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徐榮教, 2021, 63쪽 ; 임기환, 2022, 57쪽). 그러나 당시에는 신성의 주변에도 16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이 고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무런 지원 없이 단독으로 8-9개월 가량 당군과 전투를 전개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대아찬을 雲麾將軍으로 삼으니, 왕은 [일원에게] 宮庭에서 命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高宗이 劉仁願과 金仁泰에게 명하여 卑列道를 따라 가게 하고, 또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多谷道와 海谷道 두 길을 따라 가서 平壤에서 만나게 하였다.⁴²⁾

G-②. (667) 가을 8월에 왕이 대각간(大角干) 金庾信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나섰다.⁴³⁾

G-①에 의하면 667년 7월 고종은 신라에게 고구려와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이적이 신성에 공격을 개시한지 6-7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시점이다. 고종은 이적의 신성 공격이 부진하자, 유인원을 통해 신라에게 참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고종은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비열도를 따라 가게 하였다고 한다.⁴⁴⁾

고종은 신라의 군대를 징발하여 다곡도와 해곡도를 따라 평양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G-②에 의하면 문무왕이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과 함께 출병하였다고 한다. 신라가 고종의 칙서를 667년 7월에 받고 8월에 출병한 것으로 보아 평양을 공격할 군대를 편성하는 데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인원은 666년 10월에 이미 고종에 의해 당의 비열도행군총관, 신라의 김대문(金待問)은 해곡도(海谷道)행군총관(行軍總管)으로 고구려 침공에 나서며 이적의 처분에 따르게 한 바 있다(E-③). 유인원과 김대문은 667년 7월이 되도록 당의 고구려 침공에 참전하지 않은 것이다.

상술했듯이 고종은 유인원과 김대문에게 이적의 처분에 따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원과 김대문이 고구려 침공에 참전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이적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⁴⁵⁾ 그러나 이적이 신성 전투에서 6-7개월 동안 신성을 함락하지 못한 채 고전을 면치 못하자, 고종이 유인원호로 하여금 신라에게 참전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사가 주목된다.

H. (667) 9월에 漢城停에 이르러 英公을 기다렸다.⁴⁶⁾

H에 의하면 667년 8월 고종에 의해 출병한 신라군이 한성정에 도착하여 영공, 즉 이적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로 보아 고종이 신라에게 참전을 요구할 당시 이적의 당군과 함께 군사행동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G-①에 의하면 고종은 신라에게 평양으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였

4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7월, “唐皇帝勅 以智鏡·愷元爲將軍 赴遼東之役 王即以智鏡爲波珍滄 愷元爲大阿滄 又皇帝勅 以日原大阿滄爲雲麾將軍 王命於宮庭受命.高宗命劉仁願·金仁泰從卑列道 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4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가을 8월,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44) 김인태와 일원은 660년 백제 멸망 후 일원이 유인원과 함께 사비성을 지킨 인연으로 인해 유인원 휘하의 운휘장군으로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임기환, 2023, 125쪽).

45) 만일 이적이 신라군만 배제하고 유인원의 웅진도독부만 단독으로 고구려전에 참전하게 할 경우 백제고토에서 신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적은 신라군과 함께 웅진도독부의 병력을 참전하지 않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4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9월, “至漢城停 以待英公.”

47) 667년 7월 당이 문무왕에게 공식적으로 군사 동원을 요청하지 않고 유인원을 통해 간접적

다. 그렇다면 신라군과 당군의 군사행동 공조는 평양성 진군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종은 이적에게도 신라군과 동일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신라군이 이적의 군대를 기다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당시 이적이 신라군과 군사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창 격전 중에 있던 신성 전역은 물론 다른 고구려 성들을 무시하고 압록수를 도하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격전은 신성 등 요동방어망이 아직 건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방이 요동의 고구려군으로부터 위협받고 보급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군사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이적에게 신라군과 군사행동을 함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당시 당군이 신성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 중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신라군이 한성정에서 이적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을 667년 9월경에 이적의 신성 공격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I군을 살펴보자.

I-①. (667) 드디어 [이적이] 병사를 이끌고 新城의 서남쪽에서 산에 의지해 柵을 쌓아 공격을 하고 또 막기도 하자, 성 안이 窘迫해져 여러 명의 항복하는 자들이 있었다.⁴⁹⁾

I-②. (667) 드디어 [신성의] 서남쪽 산에 壁을 쌓자, 성(城)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자, 성의 사람이 추장을 묶고 나와 항복하였다. 勳은 나아가 16개 성을 함락하였고, 郭待封이 舟師로 바다를 건너 平壤으로 나아가게 하였다.⁵⁰⁾

I-③. [667년 9월 14일] 드디어 성을 공격하니, 城人 師夫仇 등이 城主를 결박하고 문을 열어 항복하였다. 勳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니 16개 성을 모두 함락하였다.⁵¹⁾

I-①에 의하면 이적은 신성의 서남쪽에 있던 산에 柵을 쌓아 신성의 군대와 치열한 공방전

으로 동원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원인은 신라군의 참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는 견해가 있다(임기환, 2023, 124~126쪽). 그러나 당시 고종의 신라군 참전 요구가 유인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종이 667년 7월 신라군의 참전을 유인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차 요구한 것은 이미 666년 말에 직접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직접 재차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667년 7월 신라군 참전 요구는 666년 말의 참전 요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적의 지휘 하에서 의도적으로 한번도 동원되지 않은 신라군을 고종이 유인원을 통해 재차 참전을 요구한 것은 신라군의 참전 범위를 최소화하려하기보다는 적극 참전하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다.

48) 당 고종과 이적은 667년 원만경 영남 유배 사건(『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行軍管記通事舍人元 萬頃爲釋其義 勳乃更遣糧仗赴之 萬頃作檄高麗文曰 不知守鴨綠之險·泉男建報曰 謹聞命矣 卽移兵據鴨綠津 唐兵不得渡 上聞之 流萬頃於嶺南.”), 668년 가연중의 보고(『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總章 원년 2월, “侍御史洛陽 賈言忠奉使自遼東還 上問以軍事, 言忠對曰高麗必平.)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군사에 관해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49)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東夷 高麗, “遂引兵於新城西南 據山築柵 且攻且守 城中窘迫 數有降者 自此所向克捷.”

50)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明年 正月 勳引道次新城 合諸將謀曰 新城 賊西鄙 不先圖 餘城未易下.”

51)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遂攻之 城人師夫仇等縛城主開門降 降 勳引兵進擊 一十六城皆下之.”

을 벌였다고 한다. I-②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의 서남쪽 산에 벽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신성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책과 벽은 소규모 성채의 형태를 가진 군사방어 거점이다. 당시 신성의 고구려군과 당군의 치열한 공방전 양상은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645년 안시성 전투 양상⁵²⁾을 참조해보면 667년 신성 전투의 양상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소규모 병력으로 야습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당군이 토산을 안시성의 안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쌓자, 안시성의 고구려군도 성벽을 더 높이 쌓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당군이 총차와 포석으로 안시성의 성루를 파괴하면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파괴된 부분에 목책을 쌓아 대응하였다고 한다.

667년 신성 전투도 이와 유사하게 전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 전개된 안시성 전투와 달리 신성 전투는 667년 1-2월부터 9월 14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전개되었다. 이는 안시성 전투보다 무려 4개월 이상, 8개월간 전개된 661-662년 평양성 전투보다 1개월 이상 전개된 것으로 상당한 장기전의 형태였다.

I-①에 의하면 신성의 고구려군이 ‘窘迫’ 해졌다고 한다. 이는 8-9개월간 전개된 장기전으로 인해 신성의 고구려 군민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졌으며, 매우 피폐해졌음을 시사한다. I-①에 의하면 이로 인해 신성에서 항복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으며, I-②에서는 그들이 신성의 추장을 묶고 항복했다고 한다. I-③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이 사람인 사부구 등이 신성의 성주를 결박하여 성문을 열고 이적에게 항복했다고 한다.

신성 내부에서는 8-9개월 동안 전개된 장기전으로 인해 항복을 주장하는 사부구 세력과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신성의 성주 세력과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적은 신성이 내부분열로 인해 스스로 항복하자, 곧장 신성 관할 하의 16개 성⁵³⁾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16개 성이 이적의 공세에 의해 일거에 쉽게 함락되었는데, 16개 성의 병력이 신성 전투에 투입되면서 16개 성의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군은 고구려 침공 전략의 선결과제였던 신성을 8-9개월 만에야 고전 끝에 함락하였다. 그리고 다음 행보로서 남생을 확보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해야 했다. 특히 이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종으로부터 신라군과 공조하라는 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적의 최우선순위는 압록수를 도하한 후 신라군과 공조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생의 확보도 소홀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J군의 기사를 살펴보자.

J-①. [667] [667년 9월] 신미(辛未, 14일), 李勣이 高麗의 新城을 함락하고, 契苾何力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龐同善과 高侃이 아직 新城에 있을 때, 泉男建이 군대를 보내 그 군영을 습격하자, 左武衛將軍 薛仁貴가 그들을 공격하여 깨뜨렸다.侃이 나아가서 金山에 이르러, 高麗와 더불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高麗의 무리가 승리하여 북쪽으로 쫓아왔다, 仁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로질러

52)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太宗 貞觀 19년 9월, “是夜 高麗數百人縋城而下 上聞之 自至城下 召兵急擊 斬首數十級 高麗退走 江夏王道宗督衆築土山於城東南隅 浸逼其城 城中亦增高其城以拒之 士卒分番交戰 日六·七合 衝車礮石 壞其樓堞 城中隨立木柵以塞其缺.”

53) 김현숙, 2005, 368쪽 ; 정원주, 2023, 75쪽.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깨뜨리니 5만여급의 머리를 베었다.⁵⁴⁾

J-②. 동선 등이 신성에 이르자, 밤에 적의 습격을 받았다. 인귀가 驍勇한 자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여 수백급의 머리를 베었다. 동선 등이 또 나아가 금산에 이르자, 적에게 패하고, 고려의 무리가 승세를 타고 나아갔다. 인귀가 그들의 측면을 공격하자, 적의 무리가 대패하고, 5만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 高宗이 手敕을 내려 위로하여 말하길, “금산의 큰 전투에서 흉악한 무리가 실로 많았다. 卿은 몸소 士卒들보다 앞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분격하여, 左衝右擊하여 향하는 곳마다 앞이 없었다. 諸軍에게 용기를 불러들여, 이르는 곳마다 전투에서 이겼다. 마땅히 훌륭한 功業을 세웠으니, 이 명성을 보전하라.”⁵⁵⁾

J-③. [방동선과 고간이] 신성에 이르러 밤에 오랑캐[고구려]의 습격을 받았는데, 仁貴가 그들을 쳐서, 머리 백여급을 베었다. 동선이 나아가 금산에 이르렀으나, 오랑캐를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고려의 무리가 승세를 타고 나아가자, 仁貴가 오랑캐를 공격하여 둘로 끊어버려서 무리가 즉시 궤멸하였고 5천급의 머리를 베었다. … [고종이] 수조(手詔)를 내려 [설인귀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⁵⁶⁾

J-④. 3년(668) 2월, 勳이 仁貴를 거느리고 扶餘城을 함락하자, 다른 30개성이 모두 納款하였다. [이에 앞서] 동선과 간(倝)이 신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건(男建)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습격하자, 인귀가 간을 구원하였다. 금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기지 못하자, 고려가 북을 치며 나아갔는데, 날카로운 힘이 대단했다. 인귀가 가로질러 [고구려군을] 쳐서 그들을 크게 깨뜨려 5만급의 머리를 베었다.⁵⁷⁾

J군은 신성의 교외에서 전개된 고구려군과 당군의 전투, 금산 전투, 당의 남생군 확보를 시기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축하여 기술한 사료이다. 우선 고구려군이 방동선과 고간이 신성에 있을 때 그들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설인귀의 기습으로 인해 수백 명의 병력을 상실하였다고 한다.

이 전투가 전개된 시점은 『당서』 설인귀전인 J-②와 J-③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J-①은 667년 9월 14일 신성의 함락 기사 이후에 기술되었으며, J-④에 의하면 방동선과 고간이 신성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였다(同善, 倝守新城). 따라서 해당 전투는 신성이 함락된 667년 9월 14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⁵⁸⁾ 남건이 신성을 수비하던 당군을 공격했다는

54)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辛未 李勳拔高麗之新城 使契苾何力守之 … 龐同善·高侃尙在新城 泉男建遣兵襲其營 左武衛將軍薛仁貴擊破之 侃進至金山 與高麗戰 不利 高麗乘勝逐北 仁貴引兵橫擊 大破之 斬首五萬餘級.”

55) 『구당서』 권83, 열전33, 薛仁貴, “同善等至新城 夜爲賊所襲 仁貴領驍勇赴救 斬首數百級 同善等又進至金山 爲賊所敗 高麗乘勝而進 仁貴橫擊之 賊衆大敗 斬首五萬餘級 … 高宗手敕勞之曰 金山大陣 凶黨實繁 卿身先士卒 奮不顧命 左衝右擊 所向無前 諸軍賈勇 致斯克捷 宜善建功業 全此令名也.”

56) 『신당서』 권111 열전36, 薛仁貴, “至新城 夜爲虜襲 仁貴擊之 斬數百級 同善進次金山 虜不敢前 高麗乘勝進 仁貴擊虜斷爲二 衆即潰 斬馘五千 … 手詔勞勳.”

57)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三年 二月 勳率仁貴拔扶餘城 它城三十皆納款 同善倝守新城 男建遣兵襲之 仁貴救倝 戰金山 不勝 高麗鼓而進 銳甚 仁貴橫擊 大破之 斬首五萬級.” 이 기사가 부여성이 함락된 668년 2월에 배치된 원인은 이적과 더불어 부여성 함락의 주역인 설인귀가 이적과 함께 부여성을 함락한 계기를 전년도인 667년에 세웠던 전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

58) 금산 전투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신성 함락 이후 설(노태돈, 2009, 215쪽

것은 신성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에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⁹⁾

신성 교외 전투가 전개된 시점은 신성이 함락된 667년 9월 14일 직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성 함락 소식이 평양성에 있던 남건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과 평양성의 고구려군이 신성으로 진군하는 이동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의 1일 행군속도는 평균 12km, 빠르면 24km이며,⁶⁰⁾ 唐代 문서조달 속도는 평균 100리, 간선도로를 낀 주요 도시의 경우 하루에 최대 500리를 간다고 한다.⁶¹⁾

신성에서 평양성까지의 거리는 약 511km이다.⁶²⁾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평양성에 문서를 조달하는 신성의 사자가 평양성으로 가는 데 3-11일, 평양성의 군대가 신성으로 행군하는 데 21-42일이 소요될 것이다.⁶³⁾ 다만, 당시 신성과 주변 16개 성이 함락된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최단 경로로 신속히 행군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성의 사자가 평양성의 남건에게 패전보를 전달하고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6-11일, 그리고 인근 성들의 병력을 소집하여 편제와 편성을 갖추고 필요한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데 대략 3일,⁶⁴⁾ 평양성의 고구려군이 신성까지의 행군 기간을 21-30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이 타당하다면 남건의 고구려군이 신성에 당도한 시점은 10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볼 수 있다.⁶⁵⁾

J-②, ③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군은 당군의 군영에 야습을 감행하였는데, 설인귀가 거느린 당군의 지원으로 인해 100명 단위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당시 당의 신성 수비 책임자는 글필하력이었는데(J-①), 그가 설인귀를 지원군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고구려군이 당군의 군영을 야습했던 것으로 보아 당군은 신성을 수비하면서도 신성 주변에도 군영을 설치하여 고구려군의 반격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성 교외에 구축된 당군의 군영을 습격한 고구려군 전사자의 규모가 100명(J-②)에서 수백명(J-③)이었던 것으로 보아 남건은 소규모 병력으로 야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건이 본격적으로 신성 탈환전을 시도하기에 앞서 소규모 병력으로 당군의 군영을 기습한 것은 당군의 동태와 전력을 탐색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 서영교, 2021, 65-66쪽), 666년 9월 설(임기환, 2022, 56-57쪽), 신성 전투 도중 설(정원주, 2022, 72-73쪽)이 있다.

59) 남건은 글필하력 등이 신성에 부재한 상황을 포착하여 신성을 지키는 당군의 병력이 약체화되었다는 판단하에 신성 탈환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서영교, 2021, 64쪽).

60) 袁庭棟, 『解秘中國古代戰爭』, 山東畫報出版社, 2008, 89쪽.

61) 中村裕一, 1988, 「赦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7

62) 신성에서 평양성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撫順-瀋陽-遼陽-本溪-丹東-義州-龍川-宣川-定州-安州-肅川-平壤이다(노태돈, 1999, 236-237쪽; 양시은, 2013, 134쪽).

63) 이민수, 2022c, 104-105쪽.

64) 羅棟煜은 645년 고구려의 15만 대군의 편성, 편제, 군수물자 준비가 갖춰지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30일로 파악하였다(羅棟煜, 2009, 102-103쪽).

65) 남소, 목저, 창암 3개 성의 병력이 신성 탈환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徐榮教, 2021, 65-66쪽). 그러나 이들 3개 성은 처려근지급의 성으로 육살급처럼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성이 아니었으므로 3개 성의 병력이 5만 명 이상이 동원된 신성 탈환군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와 당의 본격적인 전투는 금산에서 전개되었다. 양군의 대규모 회전이 전개된 금산은 현재 정확한 비정이 어렵다. 다만, 당군의 이후 행보로 보아 신성에서 소자하 유역으로 가는 경로상에 소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고구려군의 병력은 전사자 규모가 5만 명 혹은 5천 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최소 수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J-②의 수칙에서 고종이 고구려군의 규모에 대해 실로 많았다(實繁)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대규모였을 것이다.

당군의 병력 규모는 기록의 부재로 인해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종이 고구려군의 규모를 많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 보다는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고구려군보다 규모가 작았다는 것으로 양군의 대회전이 전개된 전투인 만큼 당군의 규모도 상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산 전투는 신성 교외 전투가 끝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성 교외 전투에서 남견이 중앙에서 보낸 고구려군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신성을 수비하는 당군의 입장에서 이들의 본진을 확실히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 측의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성 교외 전투의 고구려군은 당의 신성 수비 병력을 금산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전술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⁶⁶⁾

금산 전투는 당의 방동선과 고간이 군대를 이끌고 금산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J-③에 의하면 방동선은 군대를 이끌고 금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군을 두려워하여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선공은 고구려군이 시작했을 것이다. 이처럼 당군의 기선을 제압한 고구려군은 방동선과 고간의 당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J군).

고구려군은 승전의 여세를 몰아 북을 치면서 날카로운 기세로(J-④) 패주하는 당군을 북쪽까지 추격하였다(J-①). 그러나 신성 교외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설인귀가 이끄는 당군이 갑자기 나타나 추격하는 고구려군의 측면을 공격하여(J-①, ②, ④) 고구려군의 전열을 둘로 분산시켰다(J-③).

설인귀의 측면 기습에 의해 전열이 분산된 고구려군은 재정비할 틈도 없이 즉시 궤멸하고(J-③), 무려 5만 명⁶⁷⁾이나 전사할 정도로 대패하게 된 것이다. 남견의 대병력을 동원한 신성 탈환 시도는 금산 전투의 패전으로 인해 완전히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 커다란 여파를 초래하였다. 아래 K군을 살펴보도록 하자.

K-①. [667] [설인귀가] 南蘇·木底·蒼巖 3개 성을 함락하고 泉男生의 군대와 더불어 합했다.⁶⁸⁾

66) 徐榮教, 2021, 65쪽. 徐榮教도 신성 교외 전투에 대해 고구려의 유인전술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67) 『신당서』 설인귀전에는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려군의 전사자 규모를 5천 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외에 모든 사료에서는 당시 고구려군의 전사자 규모를 5만 명으로 기재하였다. 설인귀는 금산 전투의 전공으로 인해 당 고종은 직접 이를 치하하는 수칙을 내렸을 정도였으며, 수칙에서 금산 전투를 두고 大陣 즉 큰 전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대 당시 고구려군의 전사자 규모는 5천 명보다 5만 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68)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拔南蘇·木底·蒼巖三城 與泉男生軍合.”

K-②. [설인귀가] 드디어 그들의 남소·목저·창암 등 3성을 함락하고, 비로소 男生과 함께 서로 만났다.⁶⁹⁾

K-③. 남소·목저·창암 3개 성을 함락하고,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경략하고, [이로 인해 부여성에 서] 적勳과 함께 만난 것이다.⁷⁰⁾

K-④. 이때 高麗의 군사 15만 무리가 遼水에 주둔하고, 靺鞨의 수만 무리를 끌어들이어 南蘇城에 응거하자, 何力이 奮擊하여 그들을 깨뜨리고 만급의 머리를 베고, 승세를 타고 나아가 8개 성을 함락하였다.⁷¹⁾

상기한 K군은 고구려가 금산 전투 패전의 여파로 인해 소자하 유역과 남생이 당군에게 점령된 것에 대해 전하고 있다. 우선 K-①-③에 의하면 고구려가 금산 전투 패전 직후 설인귀 등의 당군이 남소, 목저, 창암성 3개 성을 함락하였다고 한다.⁷²⁾ 그리고 K-④에 의하면 고구려가 말갈군 수만 명을 끌어들이어 남소성에 응거하게 하였다고 한다. K군에 전하는 기사만 보았을 때 남소, 목저, 창암성 등은 당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함락된 것이다. 그러나 이성들이 처음부터 당군을 적대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 L군을 살펴보자.

L-①. [666년] 公은 國內城 등 6성의 10여 만호를 이끌고 호적 문서를 轄門에 바쳤다. 또 木底城 등 3성이 황제의 교화를 바라며 아울러 귀순하였다. 작고 위태로운 무리들이 나날이 궁박해지고 다달이 위축되었다. 2년(667)에 조칙을 받들어 공이 입조하였다.⁷³⁾

L-②. [666년] [고종이] 조서를 내려 契苾何力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구원하게 하자, 男生은 [죽음을] 면하고 平壤道行軍大總管 겸 持節 安撫大使에 제수되었으며, [남생은] 哥勿·南蘇·倉巖 등의 城을 들고 항복하였다.⁷⁴⁾

69) 『구당서』 권83, 열전33, 薛仁貴, “遂拔其南蘇·木底·蒼巖等三城 始與男生相會.”
 70) 『신당서』 권220, 열전145, 東夷 高麗, “拔南蘇 木底 蒼岩三城 引兵略地 與勳會.”
 71)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契苾何力, “時高麗兵十五萬屯遼水 引靺鞨數萬衆據南蘇城 何力奮擊 破之 斬首萬級 乘勝進拔八城.” 『구당서』, 계필하력전에서는 8개 성이 아닌 7개 성으로 1개의 차이가 있다(『구당서』 권109, 열전59, 契苾何力, “何力奮擊 皆大破之 斬首萬餘級 乘勝而進 凡拔七城”).
 72) 徐榮教는 남소·목저·창암 3성이 농성전을 전개하였다면 일거에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3성 병력이 이미 앞선 금산 전투에 동원되었다가 소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徐榮教, 2021, 65-66쪽).
 73) 『泉男生墓誌』, “乾封 元年 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 遙拜公特進 太대兄如故 平壤道行軍大總管 兼使持節按撫大使 領本蕃兵 共大總管契苾何力等 相知經略 公率國內等六城十餘萬戶 書籍 轄門 又有木底等三城 希風共款 巖尠危矣 日窮月蹙 二年 奉勅追公入朝 總章 元年 授使持節遼東大都督上柱國玄兔郡開國公 食邑二千戶 餘官如故.” 이와 유사한 기사가 『신당서』 친남생전에 기술되어 있다(『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泉男生,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總管 兼持節安撫大使 舉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就軍慰勞 賜袍帶·金釵七事”).
 74) 『신당서』 권110, 열전35, 諸夷蕃將 泉男生,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總管 兼持節安撫大使 舉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就軍慰勞 賜袍帶·金釵

L군은 666년 남생이 처음 당에게 내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L-①에 의하면 남생은 현성을 통해 국내성 등 6성의 10여만 호 호적과 함께 내부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목저성 등 3개성도 함께 당에 내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L-②는 남생이 666년에 당에 내부할 때 동조한 성들의 이름을 가물, 남소, 창암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9개 성 가운데 국내성, 목저성, 남소성, 창암성, 가물성 5개 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666년 남생은 9개 성의 세력과 함께 당에 내부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K-④에서 글필하력이 함락하였다는 남소성 등 8개 성과 규모가 비슷하다. 이때 남생이 주둔하던 국내성은 당군에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락된 성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666년 당시 남생과 함께 당에 내부하려고 한 9개 성들 가운데 남생이 주둔하던 국내성을 제외한 8개 성들은 남생과의 연계를 단절하고, 고구려 즉, 남건에게 다시 귀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남건이 군사적으로 재탈환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⁷⁵⁾ 그렇다면 이들 8개 성 세력이 자발적인 의지로 다시 고구려에 귀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당에게 내부할 여건만 조성된다면 당군에게 항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8개 성 특히 남소성은 수만 명의 말갈군과 함께 당군과 끝까지 전투를 치르다가 1만 명이 전사하면서 함락되었으며,⁷⁶⁾ 다른 성들도 당군의 공세에 의해 함락되었다. 이는 8개 성이 666년에는 남생에게 동조하였으나, 모종의 원인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재차 고구려에 귀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8개 성이 남건에게 귀복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성 전투가 8-9개월 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신성이 당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함락되지 않자, 남생에게 동조하여 당에게 귀부하는 것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666년 8개 성의 성주들이 남생에게 동조하여 당에게 내부하고자 한 결정이 남생과 긴밀한 관계였던 일부 주요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즉, 당에게 내부하는 것이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 세력에 의해 다시 고구려로 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남건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금산 전투에서 승전한 당군은 국내성을 제외한 8개 성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투에는 신성의 수비를 맡았던 글필하력과 금산 전투의 주역인 설인귀가 참전하였다. 그러나 방동선과 고간이 참전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글필하력은 이들에게 신성의 수비를 위임하고 남소성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추측한다.

그런데 K-①-③에서는 설인귀가 남소, 목저, 창암성 3개 성만 함락 후 남생의 군대와 합류한 것으로 기록한 것과 달리 K-④에서는 글필하력이 남소성 전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구

七事.”

75) 노태돈, 2009, 215쪽.

76) 667년 고구려가 남소성에 수만 명의 말갈 병력을 주둔시켰다 것은 후수말갈을 제외한 말갈의 병력 대부분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李玟洙, 2017, 164-165쪽).

러의 성들을 함락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설인귀는 전투 초반에 글필하력과 함께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을 공격하여 함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생의 신변이 확보되자, 글필하력은 설인귀를 남생과 함께 우선 신성으로 돌아가게 한 후 남생을 고종에게 보내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⁷⁷⁾ 글필하력은 이후에도 다른 5개의 성도 함락했기 때문에 함락한 성의 개수가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글필하력과 설인귀가 소자하 유역 및 국내성 권역과 남생의 신변을 확보⁷⁸⁾하는 동안 이적은 평양에서 신라군과 합류하고자 급히 압록수 일대에 진군한 것으로 여겨진다.⁷⁹⁾ 아래 M을 살펴보자.

M. 郭待封이 수군으로 다른 길로부터 平壤으로 향하니, 勳이 別將 馮師本을 보내 군량과 무기를 싣고 그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사본의 배가 깨져서, 시기를 놓쳤다. 대봉의 軍中은 굶주리고 군색해져서 문서를 만들어 勳에게 주고자 했으나, 오랑캐가 얻어서 보고 그 虛實을 알까봐 두려워서, 마침내 離合詩를 만들어 勳에게 주었다. 勳이 화나서 말하기를, “軍事가 마야흐로 시급한데 어찌 시를 쓰는가? 반드시, 그의 목을 벨 것이오.” 行軍管記 通事舍人 元萬頃이 그 뜻을 해석하니, 勳이 마침내 다시 군량과 무기를 그에게 향하게 하였다. 만경이 ‘檄高麗文’을 지어 말하기를, “압록(鴨綠)의 험함을 지키는지 알 수 없소.” 泉男建이 답하여 말하기를, “삼가 명을 듣겠습니다.” [남건이] 즉시 군대를 옮겨 鴨綠津에서 응거하니, 당병(唐兵)이 [압록수를] 건널 수 없었다. 황상이 이를 듣고 만경을 영남(嶺南)으로 유배 보냈다.⁸⁰⁾

M에 의하면 곽대봉이 수군으로 평양으로 진군하자, 이적이 별장 풍사본에게 군량과 무기

77) 『泉男生墓誌』에 의하면 남생은 667년에 당에 입조하였다(『泉男生墓誌』, “二年 奉勅追公入朝”).

78) 당군은 신성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국내성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영역을 남북으로 양단하는 형세를 구축하였다. 당군은 이 축을 중심으로 점령지의 폭을 확대하면서 고구려의 숨통을 조였다(노태돈, 2009, 215쪽). 또한 남생의 항복과 함께 요동에서 국내성으로 가는 길이 확보되어 뾰뾰하게 성이 들어서 있는 요동방어선을 직접적으로 돌파하지 않아도 되었다. 새로운 진격로가 확보된 셈이라 할 수 있다(임진수, 2024, 47쪽).

79) 노태돈은 이적이 신성을 함락한 9월 14일 이후 요동성-오골성-대행성 경로로 10월 2일 평양성 북쪽 200리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노태돈, 2009, 215~216쪽). 이에 대해 당군이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요동성과 오골성을 장악해야 하는데, 당군이 대성인 요동성과 오골성을 함락했다는 기사는 없으며 신성 함락인 9월 14일부터 10월 2일 불과 보름 남짓 사이에 요동성과 오골성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임기환, 2022, 67쪽). 그러나 10월 2일이라는 구체적인 연월일이 정확히 기록된 『삼국사기』를 부정하기 어렵다(徐榮教, 2022a, 7쪽). 게다가 이적은 이미 신성이라는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군이 요동성 함락에 연연하지 않고 곧장 압록수 일대로 진격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이적이 남진하는 과정에서 요동성이 전투 없이 이적에게 투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80)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龐同善·高侃尙在新城 泉男建遣兵襲其營 左武衛將軍薛仁貴擊破之 侃進至金山 與高麗戰 不利 高麗乘勝逐北 仁貴引兵橫擊 大破之 斬首五萬餘級 拔南蘇·木底·蒼巖三城 與泉男生軍合 郭待封以水軍自別道趣平壤 勳遣別將馮師本載糧仗以資之 師本船破 失期 待封軍中飢窘 欲作書與勳 恐爲虜所得 知其虛實 乃作離合詩以與勳 勳怒曰 軍事方急 何以詩爲 必斬之 行軍管記通事舍人元 萬頃爲釋其義 勳乃更遣糧仗赴之 萬頃作檄高麗文曰 不知守鴨綠之險·泉男建報曰 謹聞命矣 卽移兵據鴨綠津 唐兵不得渡 上聞之 流萬頃於嶺南.”

를 신고 광대봉에 지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풍사본의 배가 깨지면서 결국 광대봉의 수군은 굶주리게 되었다. 이에 광대봉은 이러한 상황이 고구려군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이적에게 이합시를 보내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접한 이적이 광대봉에게 다시 무기와 군량을 지급했다고 한다. 당시 당군은 글필하력과 설인귀의 활약으로 인해 국내성 유역을 장악한 상황이었다. 육로로 진군했던 이적이 수군을 운용하여 광대봉에게 군수물자를 지급한 적 있고, 재차 지급하려 했다는 것은 이적이 압록수 일대의 수운을 장악하여 활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당시 광대봉의 소재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N에 의하면 광대봉의 수군은 별도로 평양으로 향했다고 했으므로 광대봉의 소재지는 일견 평양으로 볼 여지도 있다.⁸¹⁾ 다만, 당시 당군의 최종 목적지는 수군뿐만이 아니라 육군도 평양이었다(E-⑤). 본래 당의 수륙군 모두 고구려의 멸망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대봉이 평양으로 향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대봉의 수군의 최종 목적지가 평양일 뿐 처음부터 평양으로 진군했을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수군이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혹여 수군이 단독으로 평양에 상륙한다면 고구려군에 의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에서 광대봉이 고구려군의 활동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아 광대봉은 고구려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다.⁸²⁾ 또한 M에서는 광대봉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하려 했던 풍사본의 배가 깨졌음을 전하고 있다. 이에 풍사본의 배가 풍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깨졌다는 견해가 있으나,⁸³⁾ 고구려군의 공격에 의해 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⁸⁴⁾ 광대봉의 수군은 이적이 소개한 압록수로부터 군수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곳에 상륙 후 소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N을 살펴보자.

N. [667] 겨울 10월 2일에 英公이 平壤城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영공이] 余同兮 村主 大奈麻 江深을 뽑아 보내니, [강심이] 契丹 騎兵 80여 명을 거느리고 阿珍舍城을 거쳐 漢城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독촉하므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⁸⁵⁾

N에 의하면 667년 10월 2일 이적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했다고 한다. 평양성 북쪽 200리는 지금의 청천강 유역이다.⁸⁶⁾ 그런데 M에 의하면 이적은 667년에 압록수를 도하하지 못했다. 따라서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한 당군을 이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81) 김용만, 2003, 296-297쪽 ; 서영교, 2021, 71-74쪽.

82)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광대봉의 수군이 도리어 본인들에게 필요한 물자조차 없어 굶주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당의 고구려 침공이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여러 패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임진수, 2024, 54쪽).

83) 서영교, 2021, 72쪽.

84) 이상훈, 2018, 21쪽 각주 57.

8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10월, “十月 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余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舍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86) 평양 이북 200리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을 의미한다. 직선거리로 80km 위치는 청천강 북안의 박천군 일대에 해당한다. 당시 교통로를 감안할 때 청천강 남안의 안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주가 아니더라도 청천강 일대임은 분명하다(이상훈, 2018, 14쪽).

감안한다면 667년 10월 2일에 청천강 유역에 도착한 이적의 실체는 이적의 지시를 받은 광대봉의 수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⁷⁾ 즉, 압록수 일대에 도착한 이적은 압록수 수운을 활용하여 청천강 일대에 주둔 중인 광대봉의 수군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적이 압록수 수운을 통해 광대봉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하자, 원만경이 남건에게 『격고려문』을 보내면서 압록의 협함을 지킬 줄 모른다고 조소하였다. 이에 남건은 즉시 병력을 압록진에서 배치하여 당군의 압록수 도하를 저지하였다.⁸⁸⁾ 이때 압록진의 소재지를 압록수 남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남건이 원만경의 조소를 접한 이후에야 압록수 남안에 군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661년 남생은 수만 명의 병력으로 압록수 이남에서 당군의 도하를 저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⁸⁹⁾ 이러한 군사적인 경험으로 보아 남건은 압록수 남안에 이미 상당수의 병력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만경이 남건에게 압록의 협함을 지킬 줄 모른다는 조소의 의미는 고구려의 압록수 남안 방어의 허술함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만경은 오히려 남건의 압록수 북안 방비가 허술함을 조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원만경은 고구려의 압록수 방어가 남안에만 집중된 상황을 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압록수 북안까지 도달한 이적 휘하의 풍사본 등의 수군이 압록수에서 청천강 일대까지 활동하던 원인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남건의 압록진 방어로 인해 이적의 압록수 도하 작전은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당시 압록수 이북은 당군에 의해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일대가 점거되었으나, 대행성이나 오골성 등의 고구려의 요충지는 건재한 상황이었다.⁹⁰⁾ 따라서 이적이 압록수 북안까지 도달했다고는 하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앞서 광대봉에게 향하던 풍사본의 배

87) 池內宏, 1960, 380-381쪽.

88) 이때 648년 당의 박작성, 대행성 침공시 오골성과 안시성에서 지원군을 파병한 사례와 비교하여 667년은 이와 달리 요동 방어체계와 국내성 방어체계가 무너지자 오골성 자체의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이 되어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임진수, 2024, 58쪽). 일견 타당하나, 648년에는 당군으로부터 대행성과 박작성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골성과 안시성에서 이를 구원하고자 파병한 것이다. 반면 667년에는 이적이 압록수 일대까지 진군만 했을 뿐 아직 대행성과, 박작성이 당군의 직접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미 신성 등이 당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오골성의 병력이 선불리 압록수 방면으로 파병한다면 오히려 오골성이 함락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9) 『자치통감』 권200, 당기16, 高宗 龍朔 원년 9월, “高麗 蓋蘇文遣其子男生以精兵數萬守鴨綠水 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冰大合 何力引衆乘冰渡水 鼓譟而進 高麗大潰 追奔數十里 斬首三萬級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有詔班師 乃還.” 661년 연개소문은 압록수에 당군이 오기 전에 이미 남생에게 수만명의 정예군을 주어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였다. 남생은 661년에 막리지겸 삼군대장군(莫離支兼三軍大將軍)에 취임하였다. 661년 전쟁은 평양, 요동, 압록수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남생은 압록수 방어전의 야전군 사령관을 맡은 것이었다. 남생의 군대 구성은 연개소문이 파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군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연개소문은 648년에 대행성(大行城)박작성(泊灼城)이 위기에 처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생을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여 당군의 압록수 이북 보급기지 확보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이민수, 2022a, 211-212쪽).

90) 압록강 하류에서 대행성 - 박작성의 군대를 제압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임진수, 2024, 58쪽).

가 깨진 원인을 고구려군의 공격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압록수 이북 고구려 성들의 병력이 풍사본의 배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

곽대봉이 고구려군을 두려워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압록수 일대에서 고구려군의 군사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⁹¹⁾ 이러한 상황에서 남건이 압록수 이북의 압록진에도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적과 곽대봉의 연계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O를 살펴보자.

O. [667] 11월 11일에 獐塞에 이르렀는데, 英公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粟 500석을 하사하였다.⁹²⁾

O에 의하면 667년 11월 11일 문무왕의 신라군이 장새까지 이르렀으나, 이적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회군했다고 한다. 앞서 살폈듯이 평양성 이북 200리 지점의 청천강 일대에 있던 당군의 실체는 곽대봉의 수군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곽대봉은 남건이 압록수 북안인 압록진에도 병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청천강 일대에 계속 주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곽대봉은 고구려군에 의해 후방이 차단되어 고립무원에 처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건의 압록진 병력 배치는 곽대봉의 수군 회군을 유도하고, 이적 본대의 압록수 도하도 저지한 것이다. 즉, 고구려는 압록수의 남북 양안에서 당군을 차단함에 따라 전선이 압록수 이남까지 확장되는 것을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P군은 고구려군이 이적의 압록수 도하 시도를 저지(사료 M)한 직후의 전황을 전하는 사료이다.⁹³⁾

P-1. 郝處俊이 高麗의 성 아래에 있었는데, 아직 列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高麗가 갑자기 이르니 軍中이 크게 놀랐으나, 처준은 胡牀에서 몇몇이 乾糲를 먹으면서 은밀히 정예를 뽑아 그들을 쳐서 패배시키니, 장사들이 그의 대담한 지략에 복종하였다.⁹⁴⁾

P-2. 학처준이 安市城의 아래에 있었는데, 아직 列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 군대 30,000명이 갑자기 엄습하여, 이르니 [학처준의] 軍中이 크게 놀랐다. 처준은 胡牀에서 몇몇이 乾糲를 먹으면서 은밀히 정예를 뽑아 그들을 쳐서 패배시켰다.⁹⁵⁾

91) 곽대봉은 水陸諸軍總管과 運糧使를 겸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적이 군량과 무기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당시 당 수군에게 어떤 불리한 전투 상황들이 은폐되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갖게 한다(임기환, 2022, 60쪽).

9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7년 11월, “十一月 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遇 仍授江深位級 賜粟五百石.”

93) 임기환은 이적의 학처준의 군사 활동(P) 기사 이후에 압록수 도하 시도(M) 기사를 배치하고(임기환, 2022, 58~60쪽), 사건의 선후관계를 이렇듯 배치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임기환, 2022, 65~68쪽). 그러나 『자치통감』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압록수 도하 시도(M) 기사 이후에 학처준의 군사 활동(P)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임기환의 사료 배치 기준은 따르기 어렵다.

94)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高宗 乾封 2년 9월, “郝處俊在高麗城下, 未及成列. 高麗奄至, 軍中大駭, 處俊據胡床, 方食乾糲, 潛簡精銳, 擊敗之, 將士服其膽略.”

95)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 26년 9월, “郝處俊在安市城下, 未及成列, 我軍三萬掩至, 軍中大駭. 處俊據胡床, 方食乾糲, 簡精銳, 擊敗之.”

P-1은 『자치통감』이며, P-2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이다. 두 사료는 기본적인 문장구조가 대동소이할 뿐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P-1에서는 당시의 전장을 단순히 고려의 성으로 기술하고, 고구려군의 병력 규모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으나, P-2는 당시의 전장이 안시성이었으며, 고구려군의 병력 규모를 3만 명으로 기술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시에 이 기사와 관련된 고구려 측 독자적인 전승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단지 ‘안시성’ 과 ‘3만’ 이라는 내용만 전하는 전승 자료가 있다고 상정하기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⁹⁶⁾

다만, 고구려군이 이적의 압록수 도하 시도를 저지한 전황을 고려한다면 이적은 평양성으로 진격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적의 압록수 도하 시도는 안시성, 건안성 등 후방인 요동에 배치된 고구려군의 위협을 도외시한 무리한 진격이었다.⁹⁷⁾ 이적이 재차 압록수 도하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⁹⁸⁾ 이적의 부장인 학처준의 군사 활동 기사는 이적 군의 이러한 정황을 전하는 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P-2에 전하는 당군의 안시성 공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⁹⁹⁾ 학처준이 안시성 아래에 주둔했다는 것은 이적 군의 목표가 안시성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달리 말하자면, 건안성이 아직까지 견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⁰⁰⁾

만일 건안성이 당에 투항한 상황이었다면, 건안성의 북쪽에 있던 안시성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¹⁰¹⁾ 즉, 이적은 건안성을 함락 후 나아가 오골성을 함락하여 재차 압록

96) 『삼국사기』 편찬시에 이 기사와 관련된 고구려측 독자적인 전승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단지 ‘안시성’ 과 ‘3만’ 이라는 내용만 전하는 전승 자료가 있다고 상정하기에 의문이 있다(임기환, 2022, 60쪽).

97) 안시성은 고구려가 멸망한 671년 이후에야 당군에게 함락되었다(『資治通鑑』 권202, 당기18, 高宗 咸亨 2년 가을 7월, “公可先攻建安, 建安下, 則安市在吾腹中, 此兵法所謂城有所不攻, 者也.”).

98) 만일 이적이 압록수 일대에서 장기간 주둔하며 지속적으로 압록수 도하를 시도했다면 후방의 고구려군으로부터 배후를 습격당할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99) 임기환은 학처준의 군대가 요동의 고구려 성을 공략에 대해 신성을 후원하려는 고구려 다른 성의 움직임을 차단하여 당군의 신성 공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술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처준이 공격한 고구려성이 요동 방어의 요충성인 요동성이나 안시성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임기환, 2022, 58-60쪽). 학처준의 안시성 공격 기사에 대한 임기환의 견해는 본문의 논지전개와 다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전황으로 보았을 때 학처준의 안시성 공격 기사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100)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이적은 태종에게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을 공격했을 시 안시성의 고구려군이 보급로를 차단할 것을 우려하여 안시성을 먼저 함락한 후에 건안성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즉 당군의 안시성 공격은 건안성을 보다 원활하게 함락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에 태종은 이세적의 전략을 수렴하면서 다음 행로를 안시성 공격으로 결정한 바 있다(『資治通鑑』 권198, 당기14, 太宗 貞觀 19년 9월, “對曰, 建安在南, 安市在北, 吾軍糧皆在遼東, 今躡安市而攻建安, 若賊斷吾運道, 將若之何. 斷, 丁管翻. 不如先攻安市, 安市下, 則鼓行而取建安耳. 上曰以公爲將, 將, 卽亮翻. 安得不用公策. 勿誤吾事. 世勣遂攻安市.”).

101)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태종이 이적에게 말한 것처럼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을 함락한다면 안시성의 전략적 가치는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資治通鑑』 권198, 당기14, 太宗 貞觀 19년 9월, “公可先攻建安, 建安下, 則安市在吾腹中, 此兵法所謂城有所不攻, 者也.”).

수 도하를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P군에서는 학처준이 고구려군 3만 명의 기습을 물리쳤다고는 하나, 안시성 함락에 대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의 일회성 기습을 물리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구려군 3만 명은 당군의 안시성 함락을 저지하였다. 이 고구려군 3만 명은 처려근지급 성인 안시성¹⁰²⁾의 병력이라기보다는 오골성 등의 지원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⁰³⁾ 고구려는 안시성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건안성과 오골성을 사수하고 당군의 압록수 도하도 저지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구려 멸망 전쟁(666-668)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666-667년의 전황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그 아들들인 남생과 동생들(남건, 남산)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다. 국내성에 주둔하던 남생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아들인 현성을 당에 보내 투항 의사를 전했다. 이에 당 고종은 666년 6월 7일 남생 구원군을 파병하였다. 형인 남생을 축출하고, 고구려의 새로운 집권자 된 남건은 당의 출병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수에 주둔하였다.

666년 9월 고구려군과 당의 남생 구원군은 요수 일대에서 한 차례의 전투를 치렀으며, 당군은 남생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회군하였다. 이후 666년 10월 당은 대규모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듬해인 667년 1-2월 요수를 도하한 당군의 전략은 신성 함락 후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권역을 확보하고 압록수를 도하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것이었다. 고구려 신성의 군대는 당군의 침공에 맞서 무려 8-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667년 9월 14일 함락되었다.

신성을 함락한 당군은 전력을 분산하여 이적은 압록수 일대로 남진하였다. 글필하력, 방동선, 고간, 설인귀는 신성을 방어하면서 소자하 유역과 국내성 권역을 장악하고 남생의 신변을 확보하였다. 고구려는 압록수 일대로 진군한 이적의 당군에 맞서 당군의 압록수 도하를 차단하고, 전선의 확장을 저지하였다. 이후 당군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안시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를 간파하여 학처준의 군대를 기습하기도 하면서 당군의 안시성 함락을 저지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건안성과 오골성을 사수하고 당군의 압록수 도하도 저지하는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고일: 2024.11.20,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102) 노태돈, 1999, 247~248쪽.

103) 이와 관련하여 648년 설만철군이 압록수 이북을 공격할 당시 박작성의 구원군 3만 명은 오골성, 안지성(안시성)에서 차출한 요동의 군대였던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舊唐書』권69, 列傳19 薛萬徹 ; 『新唐書』권94, 列傳19, 薛萬徹 ; 『冊府元龜』권985, 外臣部30 征討4).

【참고문헌】

-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三國史記』 『泉男生墓誌』 『馮師訓碑』
- 김강훈, 2017,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高定問」, 『歷史教育論集』65.
- 김병곤, 2013, 「668년 고구려 멸망시 蛇川原戰의 재구성 및 의의」, 『高句麗渤海研究』46.
- 김용만, 2003,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 羅棟煜, 2009,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韓國史研究』144.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徐榮教, 2021, 「唐의 고구려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131.
- 徐榮教, 2022, 「高句麗 最後의 戰爭」, 『歷史學報』254.
- 徐榮教, 2022,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138.
- 양시은, 2013,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제」, 『고고학』12-3.
- 오진석, 2021, 「연남생 투항 이후 고구려 서북부 성곽방어체제의 붕괴과정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122.
- 李琰洙, 2017, 「高句麗 遺民 李他仁의 族源과 柵城 禰薩 授與 배경에 대한 고찰」 『大丘史學』128.
- 이민수, 2018, 「李他仁의 唐 投降과 扶餘城의 高句麗 復國運動 鎮壓에 대한 分析」, 『역사와 경계』106.
- 이민수, 2021,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론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
- 이민수, 2022,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軍史』 122.
- 李琰洙, 2022,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73.
- 이민수, 2022, 「662년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 재구성」, 『한국고대사탐구』41.
- 이상훈, 2017,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軍史』104.
- 이상훈, 2018, 「668년 신라군 선발대의 진군로와 그 의미」, 『大丘史學』133.
- 이상훈, 2020,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34.
- 임기환, 2022,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
- 임기환, 2022,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23,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90.
- 임용한, 2001,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 鄭媛朱, 2013, 「高句麗滅亡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學位論文.
- 정원주, 2014, 「男生の 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한국고대사연구』75.
- 정원주, 2023, 「666년~668년 전쟁에서 淵男生の 鄉導 역할에 대한 考察」, 『역사와 담론』107.
-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 第2策)』, 吉川弘文館.
- 中村裕一, 1988, 「赦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7.

【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Goguryeo-táng war from 666 to 667

Lee, Min-su
(Sogang University)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war situation between 666 and 667, which is the first half of the Goguryeo War (666-668). Emperor Gāo zōng of the táng Dynasty invaded Goguryeo to save Namsaeng on June 7, 666. Nameon, who ousted his older brother, Namsaeng, and became Goguryeo's new ruler, was stationed in Yosu with 150,000 troops directly to cope with the táng's dispatch. In September 666, Goguryeo and táng troops fought one battle in Yosu, and táng troops returned without securing Namsaeng's safety.

Later, in October 666, the táng Dynasty invaded Goguryeo with a large force. The following year, from January to February 667, the táng army's strategy to conquer Yosu was to secure the Sūzihé basin and the domestic area after the capture of Sinseong, and to march to Pyongyang by crossing Yalu River. Goguryeo's Sinseong army fought a fierce battle for 8 to 9 months against the táng army's invasion, but it fell on September 14, 667 due to internal betrayal.

After that, the táng army dispersed its power, and Lījī advanced south to the Yalu River area, and Qibi Heli, Pángtóngshàn, gāo kǎn, and xuēréngui defended Sinseong, taking control of the Soja River basin and the area of Gooknaesung and securing the personal safety of Namsaeng. Goguryeo troops blocked the Yalu River Doha and prevented the expansion of the front line against the táng army of Lījī who marched into the Yalu River area.

After that, the Tang army marched to "Ansiseong" to find a new way out. However, Goguryeo's troops saw through this and blocked the Tang army's capture of "Ansiseong" by surprise. Since Goguryeo succeeded in the defense of "Ansiseong", it can be seen that it also had the effect of defending "Gunanseong" and "Ogolseong" and blocking the Tang army's operation to carry out the Yalu River.

Keywords : Goguryeo, Táng, YeonNamsaeng, YeonNameon, Lījī, Qibi Heli, Xuēréngui